

천국 건설 이외의 또 다른 구세주의 사명

□ □ □ □ □ □ □ □ □ □

영생의 확신만 가지면 피가 썩지 않아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에게 들어온고로 죄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고, 사람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고로 전부 잘못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알았으면 그 생각을 바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생각은 영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영생의 확신에 대한 생각 이외의 다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지만 되면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생명이 되는고로 죽지 않고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0살, 200살, 300살 이렇게 오래오래 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우러러 보게 되고 왕 중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확신만 가지면 피가 썩지 아니하고 영생의 확신만 가지면 사람이 하나님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비조건이 있습니다. 신경질이나 화를 내는 사람한테는 영생의 확신이 올 수 없습니다. 신경질이나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죽을 사람입니다. 화를 낸다든지 신경질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제단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죽을죄를 짓는 사람이 많아 있으면 열사람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의해 피가 썩어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못마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 승리제단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화를 안 내야 되고, 신경질도 안 내야 되고, 미워하는 마음도 안 가져야 되고, 못마땅한 생각도 안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사람이 늙고, 피가 썩어서 병에 걸리고, 피가 썩어서 죽는다는 것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썩으면 잘못된 생각이 돌아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썩어서 욕심을 부리는고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화를 내면 수명이 10년 단축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가 썩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러나 승리제단에 나오면 계속해서 더러운 피가 씻어지는 고로 점점 죽지 않는 피로 이루어지게 되어 반드시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제단 나오면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단 나오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제단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승리제단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께 욕 돌리는고로 그런 사람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주려고 온 사람이고로 여러분들에게 영생 얻는 방법론을 세밀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론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론도 논



구세주 조희성님

하는 것은 뭐냐면 구세주가 나오지 않았던들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영생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바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싸움하지 않는 사람이고, 신경질 내지 않는 사람이고, 못마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죄를 짓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란죄를 안 짓는 사람이 그 구원의 문을 통과 하는 거지 음란죄를 짓는 사람은 구

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의 두 가지 사명

그러나 결사적으로 음란죄를 안 저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음란죄를 안 저야 되는고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가 죽인다고 해도 음란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음란죄를 지면 영원 무궁토록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무궁토록 불구덩이 들어가서 "아이 뜨거. 아이 뜨거" 하면서 영원무궁토록 고통을 당한다면 생각만 해도 소

름끼치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서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무서워할까봐 솔직하게 말을 안 하고 감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도 왔지만 죄인들은 불구덩이 집어넣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생을 주는 사명, 하나는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사명. 그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이 사람이 오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옴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에게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안 본다고 슬쩍 슬쩍 음란죄를 짓거나, 안 본다고 슬쩍 슬쩍 개 소리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참 구세주가 되며,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정욕이 불타는고로 그 정욕에 의해서 음란죄를 지면 그 댓가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 지옥이 무서운 고로 이 사람은 죄라면 덜덜덜덜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이를 갈면서 결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입니다.

영생의 의미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쉽게 얻어진다면 거짓말입니다. 쉽게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고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원무궁토록 기쁘고 즐겁게 희열 속

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엄청난 상을 받는 것이 거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당한 노력, 하나님을 위한 결사적인 충성이 있기 전에는 그 영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단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을 안 하고 "전도 감사다." 하면 적당히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자, 그건 반드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먼저까지도 전부 셀 수 있는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천당 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여러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야 천당에 가는데 충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이 천지 공사에 필요한 헌금을 해도 하나님에게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못하면 하나님에게 헌금이라도 해서 충성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영생이요, 구원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되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에게 영생의 은혜를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생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제단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줘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슬이 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1992년 6월 3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1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16)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

(16)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하였습니다. "너와 너의 한집안이 되는 사람들을 급히 소돔성 밖으로 피난시켜라. 소돔 사람들의 몸에서 악한 생각의 물질이 한없이 쏟아져 나와 공중하늘에 가득 매우더니 결국 불과 유황불과 같은 악령을 생산하였느니라. 그 불과 유황불이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 땅 아래로 비 오듯 내리니라. 소돔 사람들의 심령을 더럽혀 온 공중신 마귀가 이렇게 재앙을 내려 해가 돌을 쯤에 이 소돔과 이웃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셨느니라."

여기서 밤은 깊어져서 하나님의 형벌이 내릴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귀의 장난임을 알아야 합니다.

롯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급히 성안의 친척집을 찾아다니면서 서둘러 피난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롯의 말을 믿지 않고 코웃음만 쳤습니다. 롯의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듣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야흐로 동이 트려고 하니,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빨리빨리 떠날 준비를 하여라. 너의 아내와 자식들만이라도 데리고 피난하



롯이 망설이자 그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내다 (창19:16)

여라. 녹장을 부리다가는 불더미 속에서 죽을 테니까!"

롯이 정든 집과 물건이 아까워 얼른 떠나지 못하고 있기에, 두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이끌고 성 밖에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仁慈)를 더하시어 이르시니라

"자, 빨리 산으로 도망가거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 뒤

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면 목숨을 잃을 테니까!"

59세의 롯은 산으로 바삐 오를 만한 체력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소돔과 접경하는 이웃의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두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롯의 물음 속에는 그 성읍이 소돔에 비하면 변화하지도 않고 매우 작기 때문에 죄도 적을 것이므로 재앙이 그리로 미치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롯의 물음에 천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고 했습니다.

이 이후로 그 성을 '소알'이라 불렀습니다. 소알 성읍까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있었지만, 하루 전에 두 천사가 마귀와 싸워 소알 사람만큼은 구원해놓았던 것입니다. 이를 전에 마사다 부근에서 아브라함의 전승을 받은 두 천사는 여울 같은 소금바다(사해)를 건너서 맞은편 소돔(리산반도)으로 곧바로 가는 길을 제

쳐두고 사해 남단의 소알 성읍을 거쳐서 소돔으로 왔던 것입니다.

뒤돌아보거나 도중에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롯의 식구가 소알 성읍에 들어갈 때에 아침 해가 돋았습니다. 곧 이어 악령을 머금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공중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듯이 유황불과 불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불벼락으로 타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집에 두고 온 많은 재산이 아까워 천사의 당부를 잊어버리고 소돔 쪽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뒤돌아보는 음란죄를 짓는 그 순간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 선 채 소금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마르세 천막에서 일찍이 일어나 여섯 시간이나 걸어서 여호와 앞에 섰던 마사다에 당도했습니다. 그 마사다에 와서 눈을 들어 소금바다 건너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했습니다. 그때에는 이미 유황불과 불이 쏟아진 후라 연기가 웅기점 연기같이 치밀어 오르는 것만 보였습니다.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좋은 친구로 삼아 가나안 땅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롯



뒤돌아 보는 음란죄를 지은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으로 화하다

의 현명한 선택이 멸망으로부터 가족전체가 구원받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창 19:29). 그리고 스무 살을 바라보는 두 딸이 정혼한 상태에 있었기 망정이지 만약 동참하여 자녀를 갖고 있었다면 아버지의 말보다 남편의 뜻을 따라 소돔에 남아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소돔과 소알의 점경지대에 소금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와 그 변화한 도시의 멸망을 목도한 롯은 더 이상 사람 사는 곳이라면 두려워서 두 딸과 함께 깊은 산골속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본고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인철라